

“네트백方式 原油 판매 늘리겠다”

- ……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방한중인 야마니…… ●
- …… 사우디아라비아石油相을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韓國측에…… ●
- …… 서 崔珪圭 석유협회회장(京仁에너지사장)을 비롯하여 金恒德 油公사장, …… ●
- …… 具平會 湖南精油사장, 李承源 雙龍精油사장, 張洪宣 極東石油사장, 金鳳…… ●
- …… 完 麗水에너지사장등 6명이, 사우디측에서는 야마니石油相을 비롯하여…… ●
- …… 헤르잘라치관, 알세와히駐韓대사, 알후세이니국장등 4명이 참석했다. …… ●
- …… 또 야마니石油相은 이날 상오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 ●
- …… 견을 갖고 국제원유가격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 ●
- …… 다음은 이날 오찬에서의 대담내용과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내용을…… ●
- …… 요약, 정리한 것이다(編輯者註). …… ●

I. 精油社사장들과의 一問一答



▲問(韓國측)=최근의 국제원유 가격하락에 대한 견해는

답=지난 73년에 제1차 석유 위기, 79년에 제2차 석유위기가 있었고, 최근의 상황도 일종의 석유위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석유공급의 부족도

과잉도 아닌 상태로서 어디까지나 정치·경제의 하나의 드라마에 불과한 것이다.

제1차 석유위기는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자기 것을 찾으려는데서 온 파동이고, 제2차 석유위기는 OPEC의 실수로 저

질러진 것이다. 최근의 국제원유 가격하락사태는 非OPEC가 OPEC와 보조를 맞추어 산유량제한에 협조하지 않고 최대산유량을 계속 유지한데서 온 것이다.

▲問(韓國측)=비협조의 선봉은 어느 나라인가.

답=英國이다. 지금도 계속 최대산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산유국을 막론하고 언제까지 유가하락에 버티며 산유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며, 또 부존자원의 수명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첫째 문제는 앞으로 Fresh money를 투입하는 사태가 될 경우 불가능해질 것이다. 美國의 경우 소규모 유전은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 그 물량은 대략 180만B/D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물량만큼은 수입해야 될 것이다. 北海유전도 마

찬가지인데 어느 선에 이르면 감축할 것이고, 어쩌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Fresh money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본다.

▲問(韓國측) = 노르웨이는 어떤가.

답 = 노르웨이는 문제가 안된다. 非OPEC에서는 英國이 문제다.

둘째는 부존자원의 수명인데, 非OPEC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오는 95년부터 산유량이 감소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北海가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에너지계획은 적어도 10년 단위로 세워 5년마다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油價 하락은 또 다른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또 언제 상승할지 아무도 모른다.

▲問(韓國측) = 오는 3월에 열릴 OPEC 총회의 전망은

답 = 별 신통한 결론이 날 수가 없고 또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전에 非OPEC 측과의 접촉을 계속하겠다. 국제원유가격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나, 그렇게 큰 폭은 아닐 것이다.

▲問(韓國측) = 네트백 방식은 東西 모두 동일한가.

답 = 그렇다. 그러나 운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메이저와 韓國 공급價에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암시). 만약 韓國이 사우디에서 원유를 사오면 이 原油代는 별개 계정으로 예치해 두고 韓國상품의 수입이나 건설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問(야마니) = 韓國은 언제 국내유가를 조정했는가. 또 原油代를 얼마로 정했는가.

답 = 지난 2월 20일에 조정했다. 도입원유비의 기준은 베럴당 22달러 89센트로 정했다.

▲問(야마니) = 이렇게 油價의 변동이 심할 때 시장流通價가 너무 자주 변하면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 아닌가. 스파트가격은 지역차, 운임, 그리고 수송의 리드타임도 있는데 장기안정공급과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油價는 계절, 지역차와 정치 경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問(韓國측) = LPG가격을 내릴 용의는 없는가.

답 = LPG는 원유와 그 성격이 다르다. LPG는 플랜트와 저장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 LP

G는 안정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LPG를 원유가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로테르담 현물시장에서 LPG를 보았는가.

▲問(韓國측) = LPG가격이 비싸면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불리하게 되어 시장확대가 어렵지 않을까.

답 =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問(具平會사장) = 우리 계열회사가 오는 6월 貴國의 SABIC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 가게 되면 찾아 뵙겠다.

답 = 6월의 Dhara는 혹서라서 어렵고 Taif에 오면 기꺼이 만나겠다. 큰 고객이니깐, ...

II. 記者會見에서의 一問一答



▲問 = OPEC가 「시장점유율 확보」정책을 수정, 「가격지지」정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는가.

답 = OPEC의 13개 회원국 중 이란, 리비아, 알제리가 가격지지정책으로 되돌아 가자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가격지지정책으로의 복귀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 오는 3월 16일의 OPEC 총회에

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다.

▲問=국제원유가격 하락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또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가.

답=급년들어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수준만 해도 당초의 모든 예상을 밀도는 것이다. 심리적 영향이 유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게 아닌가 보고 있다. 精油社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적인 하락폭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배럴당 15달러 선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유값이 떨어지면 코스트가 많이 먹히는 油田은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이 돼야 채산성이 있는 美國의 日産 10배럴 미만의 유전들은 금명간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국제원유가격의 하향추세가 마냥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油價는 반드시 다시 오른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때까지 원유가는 불안정 상태를 지속할 것이며, 이 때문에 선진공업국들이 경제운용면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問=外信에 따르면 귀하는 OPEC와 非OPEC산유국이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답=사실무근이다. 그러나 非OPEC산유국과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問=네트백方式에 의한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안정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답=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격의 안정을 원한다. 불필요한 가격변동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네트백方式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가격정책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격결정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 한 네트백方式에 의한 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問=OPEC의 公示價가 무의미해졌는데 이를 수정할 용의는

답=사우디아라비아는 회원국 중에서 마지막으로 공시가를 포기했다. 더 이상 OPEC를 위해 희생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公示價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야마니 石油相 油價 10달러까지 下落전망

야마니 사우디 石油相은 油價의 폭락세로 油價가 회복되기 前에 적어도 당분간 10\$/B線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마니 石油相은 日本 NHK-TV와의 會見에서 이러한 低油價가 北海油田과 같이 운영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 지역의 油井들의 原油生産을 일시 中斷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10\$/B 水準의 낮은 油價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既存의 油價維持體制가 이러한 낮은 수준으로의 油價안정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OPEC

와 非OPEC 산유국들이 參與하는 汎産油國會談을 오는 3月 중순 OPEC 임시국회 이후에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油價安定문제는 OPEC와 非OPEC 산유국간의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마니 石油相은 이어 油價안정시책은 OPEC 회원국들의 시장점유율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展開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PEC 會員國들의 公정한 市場占有率은 회복되어야 하며 非OPEC 산유국들은 시장점유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